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하늬바람>은 맑은 날 서쪽에서 부는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을 일컫는 말로 상쾌한 느낌을 주는 바람입니다.
인천시민문화대학은 쉼 없이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하늬바람이 되고자 합니다.

문화의 길 총서 저자 특강

대 상 관심있는 누구나(선착순 15명)

장 소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H동 자료실

일 시 10/16 ~ 12/4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9시, 총 8회)

접수방법 선착순 신청, 온라인 http://naver.me/5Y8Wy5yw 으로 접수
강의 시간 동안 어린 자녀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술놀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만 4세~만 9세(초3))

인천문화재단이 발간한 "문화의 길" 총서 시리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던 근대의 관문
인천의 독특한 지역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역사 및 문화 기록이다.
8명의 총서 저자들과 함께 '인천' 이라는 도시의 프리즘을 통해
한국 근현대의 초상을 새롭게 조망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날 짜	주제 · 내용	강 사
10/16 (월)	**바다의 황금시대, 파시** · 한국 바다의 오디세이, 파시	강제윤 (시인, 섬여행가)
10/23 (월)	**시공간을 출렁이는 목소리, 노래** · 삶과 공간에 스민 노래의 뿌리와 줄기를 찾아서	나도원 (음악평론가)
10/30 (월)	**도시와 예술의 풍속화, 다방** · 다방,그 독특한 공간의 20세기 풍속도 ※ 11월 4일 (토) 답사예정	김윤식 (시인)
11/6 (월)	**질주하는 역사, 철도** · 철도의 역사에 비친 한국 근현대의 풍경	조성면 (문학평론가)
11/13 (월)	**화교 문화를 읽는 눈, 짜장면** · 한·중·일을 잇는 이야기 타래, 짜장면	유중하 (연세대 중문과 교수)
11/20 (월)	**삶의 여백 혹은 심장, 야구** · 야구, 이 땅과 사람에 대한 애틋한 연대	김은식 (야구평론가)
11/27 (월)	**세월을 이기는 힘, 오래된 가게** · 가게,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묻어나는 곳	정진오 (경인일보 기자)
12/4 (월)	**은막에 새겨진 삶, 영화** · 도시는 영화다. '영화'라는 창을 통해 인천의 근현대사를 들여다본다.	강성률 (광운대교수)

강사소개

강제윤

1988년 계간 《문학과 비평》겨울 호로 등단하였고, 《문화일보》의 '평화 인물' 100인으로 선정되었다. 2006년부터 한국의 사람 사는 모든 섬을 걷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6년 동안 250여 개의 섬을 걸었고, 지금도 난개발로 사라져 가는 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프레시안 인문학습원 '섬 학교'의 교장이며, 도서출판 호미 기획위원이기도 하다. 『어머니전: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소설이다』, 『섬을 걷다』, 『그 별이 나에게 길을 물었다』, 『자발적 가난의 행복』, 『보길도에서 온 편지』 등의 저서가 있다.

나도원

오랜 꿈은 사학자여서 뒷산에서 마제석기와 유물조각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학교를 마치고선 록 뮤지션이 되어 작곡하고 연주하며 20대를 채워갔다. 대중음악 평론가가 된 지금, 결과만 보면 지금 그 둘이 합쳐진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평소에 숲과 저수지를 헤매고 다니다 보니 어느새 산기슭에 서식하는 다람쥐와 서어나무, 곤충들과 돌멩이들에게 유명 인사가 되었다. 이제는 인천 거리의 신호등과 골목의 전선들과도 아는 사이가 되었다.

현재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및 장르 분과장, 이매진어워드 선정위원, 예술인소셜유니온 공동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지원 예술행사 평가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중가요 기본 콘텐츠 수집사업 채록연구원, EBS 스페이스 공감 '헬로 쿠키' 심사위원, 광명음악밸리축제(2005~2006) 프로그래머·매체기획팀장·진행감독, 민예총 《컬쳐 뉴스》 대중음악 전문기자 등으로 활동했다. 음악비평 문화를 위하여 《100비트》 편집위원, 《가슴》편집인, 《보다》기획위원을 역임해 왔으며, 『결국, 음악』 등을 썼다.

김윤식

인천에서 출생하여 제물포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다. 1987년 『현대문학』에 시가 추천 완료되어 등단했다. 인천문인협회 회장, 인천문화재단 이사 등을 지냈고, 현재는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으로 『고래를 기다리며』, 『북어2』, 『사랑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이 저문 종소리를 울리고 있다는 것이다』, 『옥탑방으로 이사하다』, 『길에서 잠들다』, 『청어의 저녁』이 있고, 공저로 인천 향토사와 관련된 『간추린 인천사』, 『월미도 이야기』등이 있다.

조성면

저자 조성면(趙城勉)은 화성인(華城人)이다. 대중문학 · 대중문화 · 마음공부 · 풍수학 등에 관심이 많다. '정통 인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문난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한국 근대 대중소설 비평론』, 『대중문학과 정전에 대한 반역』, 『한비광, 김전일과 프로도를 만나다: 장르문학과 문화비평』, 『한국문학 대중문학 문화콘텐츠』, 『그래픽 스토리텔링과 비주얼 내러티브』(번역서), 『경계를 넘고 간극을 메우며: 장르문학과 문화비평』등의 저서와 다수의 평론 및 논문을 발표했다. 문학평론가이며, 평택대 대우교수 등을 거쳐 인하대 BK 동아시아한국학사업단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마음에 품고 사는 구절은 시시조공(時時照空) 사사항마(事事降魔)이며, 산책과 청국장과 김치를 특히 좋아한다.

유중하

본디 루쉰(魯迅)을 전공하면서 전공자 몇이서 그의 글을 번역 · 출간하기도 했으나 아무도 읽어 주지 않아 실망하던 차에, 근자에 우연히 중국 산둥(山東) 출입이 잦아지면서 산둥과 화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화교가 한국에 들여온 짜장면이라는 음식에 접속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루쉰도 소설 「분월」에서 짜장면을 다루고 있을 분 아니라 그 짜장면 혹은 중국음식에 제법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환희작약(歡喜雀躍) 중이다. 만주에 건너간 산둥 사람들을 그린 중국 드라마 <황관둥>에 등장하는 음식 이야기를 주제로 「음식은 어떻게 문화가 되는가」라는 '논문'을 쓴 데 더하여 최근에 다시 「한 · 중 짜장면 비교 고찰」이라는 엉거주춤한 '논문'을 쓴 걸로 보아, 향후 짜장면으로 계속 '길'을 낼 작정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김은식

저마다 행운과 불운 속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울고 웃고 노력하다가 어느 만큼의 성공과 실패를 겪어 가는 삶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 매체에 그런 사람들에 관한 글을 써 왔고, 『장기려, 우리 곁에 살다 간 성자』, 『이회영, 내 것을 버려 모두를 구하다』, 『공병우, 한글을 사랑한 괴짜 의사』 같은 책들을 펴냈다. 특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쥐어짜내 도전하며 희로애락, 성공과 실패와 희열과 좌절 같은 삶의 모든 요소들을 압축적으로 경험하는 야구 선수들의 인생에도 매력을 느껴 『야구의 추억』, 『해태 타이거즈와 김대중』, 『LG트윈스 때문에 산다』 등을 쓰기도 했다.

정진오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다. 월남 이상재 선생의 생가가 바라보이는 시골 중학교에 다녔다. 자전거로 통학하는 10리 길, 높다란 고갯마루에 서 있던 월남 공덕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충남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인천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0년 경인일보에 입사해 여태 일하고 있다.

입사하자마자 먼저 있던 기자들이 쓴 기획 시리즈를 책으로 묶는 작업에 참여했다. 『격동 한 세기 인천 이야기』(다인아트, 2001)이다. 그 뒤로 동료들과 함께 '인천'에 관한 또 다른 기획 시리즈를 싣고 이를 보완해 책으로 엮었다. 『인천 인물 100인』(다인아트, 2009), 『세계사를 바꾼 인천의 전쟁』(다인아트, 2012) 등이다.

다양성이 특징인 인천은 이래저래 아팠던 흔적을 참 많이도 갖고 있다. 그 다양성을 인천의 장점으로 드러냈으면 한다. 그래서 그 인천의 다양성과 아픔을 책으로 풀어내 인천을 여러 방면에서 그려도 보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경계로도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품고 산다.

강성률

자연 속에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고교 진학을 위해 나간 도시에서 영화를 처음 보고 몹시 흥분했으며, 이후 극장에서 숱한 시간을 보냈다. 시인이 되기 위해 국문학과에 진학했다가 진로를 바꿔 대학원에서 영화학을 공부해 평론가가 되고 박사 학위도 받았다. 지금은 광운대 문화산업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여러 매체에 평론을 기고하고 있다. 영화에 대한 주된 관심은 끊임없이 변해 왔지만, 사회와 역사를 잘 담으면서도 형식이 신선한 영화를 선호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지은 책으로는 『하길종 혹은 행진했던 영화바보』, 『한국영화, 중독과 해독』, 『영화는 역사다』, 『친일영화의 해부학』, 『감독들 12』 등이 있다.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하늬바람>은 맑은 날 서쪽에서 부는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을 일컫는 말로 상쾌한 느낌을 주는 바람입니다.
인천시민문화대학은 쉼 없이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하늬바람이 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과 문화예술

대　　상 관심있는 누구나(선착순 15명)

장　　소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H동 자료실, A동 이음마당

일　　시 10/17 ~ 12/5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총 7회)

접수방법 선착순 신청, 온라인 http://naver.me/xdobQlJv 으로 접수

강의 시간 동안 어린 자녀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술놀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만 4세~만 9세(초3))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에 반려동물을 통해 문화예술을 알아보는 강좌이다.
특히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미술사를 고양이와 강아지를
소재로 한 미술 작품으로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수업으로 단순히
서양 미술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와 강아지가 재현되는 방식으로
미술의 의미와 사회적 배경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날 짜	주제 · 내용	강 사
10/17 (화)	**반려동물과 문화예술** ·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반려동물 엽서 드로잉)	담당자
10/24 (화)	**반려동물 그 아름답고 신기한 유대와 공존** · 우리가 모르고 있던 내 곁의 작은 치타 매력적인 고양이의 삶과 생태, 그리고 강아지와 인간이 살아 온 역사를 알아본다. 이어 우리사회에서 반려동물의 현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공존을 생각한다.	전진경 (동물보호단체 카라 상임이사)
10/31 (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 장호성 작가가 동물 사진을 찍는 이유, 그리고 그 경험의 이야기 · 반려동물과 사진 촬영	장호성 (사진작가)
11/7 (화)	**냥이댕이 그림으로 미술사 맛보기 : 고대 - 19세기** · 구석기와 신석기를 거쳐,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중세, 르네상스와 바로크, 로코코, 사실주의, 낭만주의, 상징주의 미술의 전개와 사회적 배경을 이해.	채은영 (임시공간대표)
11/14 (화)	**냥이댕이 그림으로 미술사 맛보기 : 20세기 초반** · 인상주의를 시작으로 야수파, 독일표현주의, 입체파, 미래파, 다다, 초현실주의 등 현대미술의 기반을 마련한 모더니즘 시대를 고양이와 강아지 소재의 작품으로 이해.	
11/28 (화)	**냥이댕이 그림으로 미술사 맛보기 : 20세기 후반** · 추상표현주의를 시작으로 팝아트, 개념미술, 페미니즘, 설치 및 비디오 아트 등 동시대 미술의 전형을 보여준 시대를 고양이 강아지 소재의 작품으로 이해	
12/5 (화)	**대중문화 속 냥이댕이** · 문학, 음악, 영화, 만화, 광고 등에서 보이는 고양이와 강아지의 재현 방식과 반려동물의 사회 문화적 의미	

강사소개

채은영

어릴 적부터 큰 개를 마당에서 키우는 로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로드킬 직전의 아기 고양이구조를 계기로 집사의 길로 들어섰다. 서울 강동구 공식 급식소 담당자이자 둔촌아파트 캣맘으로 동물 보호 및 생태 활동을 하고 있다. 통계학, 문화예술경영, 미술이론을 공부했고, 시각예술 관련 전시, 프로젝트 기획, 연구와 강의 및 번역을 한다. 도시 공간에서 자본과 제도와 건강한 긴장감을 갖는 시각 예술의 공공적 기여와 창의적 소통을 위한 상상과 실천에 관심이 많은 인터로컬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인천에 있는 신생공간 '임시공간'의 대표로 <로컬 큐레이팅포럼2017>, <캐비넷아트페어>, <人千始淌美述觀 인천시립미술관:두번째 도시, 세번째 공동체>를 기획중이다.

전진경

동물을 좋아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키우던 마당 강아지들을 사랑했고, 자라면서 동물에 대한 관심은 확장되었다. 동물학을 공부하고자 했던 어릴 적 뜻이 좌절된 이후 자원봉사를 통해 동물권의 증진을 위해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에서 상임이사로 근무하며 동물보호 정책연구와 캠페인 등을 기획 실행하고 있다. 동물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으며 그들에 대한 학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길고양이들을 깊이 연민하게 되면서 뒤늦은 생태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도 늦은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저서로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핸드북>, 역서로는 <인간과 동물 유대와 배신의 탄생>이 있다.

장호성

어릴 때부터 유난히 동물을 좋아했다. 적어도 내가 지금 기억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말이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 나에게 왜 동물을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좋아했다."라고 대답할 것 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어릴 때부터 굳이 배우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아껴줘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한국에서는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고 그 중 절반이상 안락사를 당하고, 대부분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보호소나 길거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유기동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학대당하고 착취당하고 감금당하며 고통 받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의 다양한 표정과 몸짓에서 감정을 보여주고 싶다.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것을 느꼈다면 반대로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하늬바람>은 맑은 날 서쪽에서 부는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을 일컫는 말로 상쾌한 느낌을 주는 바람입니다.
인천시민문화대학은 쉼 없이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하늬바람이 되고자 합니다.

다양성과 공생으로 읽는 섬 이야기

대 상 관심있는 누구나(선착순 15명)

장 소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H동 자료실

일 시 10/11 ~ 11/29 (매주 수요일 저녁 7시~9시, 총 8회)

접수방법 선착순 신청, 온라인 http://naver.me/GdxMzzRq 으로 접수

강의 시간 동안 어린 자녀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술놀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만 4세~만 9세(초3))

지속가능한 섬을 위하여 섬의 보전, 연구, 교육, 순례, 디자인 사업 등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황해섬네트워크와의 공동기획 강좌로
섬의 인문, 역사, 자연, 해양, 생태 등 해당 분야 전문가와 섬연구자를 초청하여
대화와 토론을 진행한다. (황해섬네트워크 공동기획)

날 짜	주제 · 내용	강 사
10/11(수)	**인천의 섬과 섬사람들** · 인천 섬과 섬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섬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세기 (시인, 황해섬 네트워크 상임이사)
10/18(수)	**인천 섬의 역사와 생활** · 인천 섬의 역사적 특성을 살펴보고 섬사람들의 생활을 알아본다.	김락기 (강화역사 문화 센터장)
10/25(수)	**팔경으로 읽는 인천 섬지리** · 팔경의 전통과 섬 팔경의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인천 섬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펴본다.	이영태 (인천 개항장 연구소 대표)
11/1(수)	**개신교의 기착지 인천의 섬** · 개신교의 역사와 인천의 섬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최인숙 (인하대 강사)
11/8(수)	**인천의 섬과 해양세계** · 인천 섬의 해양학적 특성과 생태환경에 대해 알아본다.	최중기 (인하대 명예교수)
11/15(수)	**지질로 보는 인천의 섬** · 인천 섬의 지형과 지질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김기룡 (삼산교 교장)
11/22(수)	**인천의 섬으로 찾아오는 새들** · 인천 섬에 서식하고 있는 새들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김대환 (인천조류 연구회 회장)
11/29(수)	**인천의 섬 생태와 식물** · 인천 섬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특징과 식물들에 대해 알아보고 보존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공동기획 단체 소개

사단법인 황해섬네트워크 소개

사단법인 황해섬네트워크(고문 김원 최원식 이사장 최중기)는 2012년부터 인천경기만 섬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던 인천섬연구모임이 2016년 10월 황해의 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섬바다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섬생태문화보존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현재 사단법인 황해섬네트워크는 섬연구센터(센터장 이병천), 섬보전센터(센터장 장정구), 섬교육센터(센터장 최인숙), 섬순례센터(센터장 이동열), 섬디자인센터(센터장 조강희) 등 5개의 부설기구와 섬총서간행위원회(위원장 이세기), 섬유산위원회(위원장 김기룡), 섬포럼위원회(위원장 김기현), 서해5도특별위원회(위원장 허선규) 등 4개의 실행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인천섬연구총서1_교동도, 인천섬연구총서2_덕적도를 출간했고 2017년 하반기 인천섬연구총서3_장봉도를 출간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황해섬네트워크는 2017년 ▲ 섬연구총서 간행사업(섬연구총서3_장봉도, 섬연구총서4_대청도) ▲ 지속가능한 섬 관광활성화정책토론회▲ 섬보존을 위한 자연유산, 문화유산 발굴 및 홍보사업 ▲ 사람과 섬을 잇는 시민대학 ▲ 생태여행 콘텐츠 개발사업 ▲ 섬생태문화해설사 양성사업 ▲ 지속가능한 섬지킴이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하늬바람>은 맑은 날 서쪽에서 부는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을 일컫는 말로 상쾌한 느낌을 주는 바람입니다.
인천시민문화대학은 쉼 없이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하늬바람이 되고자 합니다.

맛의 말, 말의 맛
우리 음식의 언어

대 상 관심있는 누구나(선착순 15명)

장 소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H동 자료실

일 시 10/12 ~ 11/30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총 8회)

접수방법 선착순 신청, 온라인 http://naver.me/GERYa1rN 으로 접수

강의 시간 동안 어린 자녀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술놀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만 4세~만 9세(초3))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가를 들여다보는 일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길이다.
밥그릇이 점점 야위어가고 밥상의 구석으로 밀려나는 시대,
식구는 사라지고 혼밥이 일상이 된 시대에도 삼시세끼의 말들은
여전히 우리네 '정'과 '온기'를 품고 있다. 본 강의는 '말들의 주인'인
우리 모두의 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음식의 언어 11편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날 짜	주제 · 내용	강 사
10/12 (목)	**사라져가는 밥심** · 벼, 쌀, 밥이 구별되는 우리말, 고봉의 흰밥에 집착하던 우리의 삶.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말 그대로 찬밥이 되어 버린 밥과 밥심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한성우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10/19 (목)	**'혼밥' 시대에 다시 묻는 밥의 의미** · 집밥 만이 유일한 밥이던 시절에는 아예 없던 말 집밥, 그마저도 혼밥이란 말에 밀려나고 있는 현실에서 밥과 밥상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	
10/26 (목)	**빵과 국수의 도전** · 밀가루로 만든 빵과 국수가 밥을 대신할 수 있는가? 어느덧 우리 삶의 중요한 먹거리가 된 빵과 국수가 어떤 여정을 밟았는지 그 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	
11/2 (목)	**국물 맛이 끝내줘요?** · 국과 찌개는 구별되는가? 국은 국물 맛으로 먹는가? 따로국밥처럼 멀어진 말과 음식과의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보며 우리말의 진국을 음미해 본다.	
11/9 (목)	**푸른 밥상의 축복** · 가난한 사람들의 밥상이 고급 건강식으로 탈바꿈한 현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갖가지 채소와 그것으로 만든 음식의 이름을 해부해 본다.	
11/16 (목)	**고기의 원초적 유혹** · 못 먹어도 탈, 많이 먹어도 탈인 고기, 뭍과 물에서 뛰놀던 생명체가 음식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 말을 통해 차근차근 살펴본다.	
11/23 (목)	**식후경? 아니, 식후식** · 먹거리가 넘쳐 나는 시절의 후식과 간식, 그것의 이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시대의 변천에 따라 살펴본다.	
11/30 (목)	**갖은 양념의 말들** · 맛을 나타내는 말들, 음식의 맛을 내는 양념을 가리키는 말들, 이런 말들이 양념으로 어떻게 작용하면서 우리말의 맛을 더하는지 알아본다.	

강사소개

한성우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전공 교수)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서울과 아산을 오가다가 열두 살 이후로는 내내 서울에서 살았다. 아산에서 산 기간은 합쳐봐야 일곱 해 정도인데 말이나 행동, 그리고 머릿속은 전형적인 충청도 사람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공대 진학을 꿈꾸던 자연계열 학생이었으나 진로를 바꾸어 1988년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였다. 이 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거쳐 2003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 재직하다 2007년에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전공 교수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전공 분야는 한국어음운론과 방언학이지만 일찍부터 글쓰기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많은 경력을 쌓았다. 박사학위를 받기 전 (주)이텍스트코리아의 문장상담팀장을 맡아 문장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개척하였다. 이 때 수도권의 문화재 안내문,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회사의 매뉴얼 등 기관과 기업의 모든 문서에 대한 컨설팅을 하였다. 또한 문화방송의 우리말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아나운서, 기자를 비롯한 방송인의 언어에 대한 연구와 교육도 하였다.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하늬바람>은 맑은 날 서쪽에서 부는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을 일컫는 말로 상쾌한 느낌을 주는 바람입니다.
인천시민문화대학은 쉼 없이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하늬바람이 되고자 합니다.

예술로 토닥토닥 〈즉흥연극 워크샵〉

대　　상 관심있는 누구나(선착순 15명)

장　　소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A동 2층 연습실

일　　시 11/2 ~ 11/23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총 4회)

접수방법 선착순 신청, 온라인 http://naver.me/GxjS8zon 으로 접수

강의 시간 동안 어린 자녀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술놀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만 4세~만 9세(초3))

'예술로 토닥토닥 <즉흥연극 워크샵>'은 즉흥연극을 참여자들에게 소개하고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참여형 워크샵이다. 즉흥연극은 정서와 감정을 언어 및 비언어적(몸짓과 소리)으로 표 현하는 예술 형식으로서 몸의 감각과 충동을 일깨우는 한편, 타인에 대한 이해와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무대예술이다. <예술로 토닥토닥>이라는 제목처럼 노래와 스토리텔링, 즉흥연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고 나아가 타인을 토닥일 수 있는 일상 예술의 장이 될 것이다.

날 짜	주제 · 내용	강 사
11/2 (목)	**몸과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 연극놀이와 즉흥** · 프로그램 소개 · 자기소개 및 참여 동기와 목표 공유 · 연극놀이로 웜업 및 친밀감 형성 · 뚝딱 만들기	미뇨, 오정 (극단 목요일오후 한시 배우)
11/9 (목)	**인생노래로 토닥토닥: 나를 버티게 해준 노래** · 즉흥 말하기 "그땐 그랬지" · 인생노래 함께 부르고 사연 나누기 · 찰흙과 조각가 · 조각상과 스틸컷	
11/16 (목)	**이야기로 토닥토닥: 어느 외로웠던 날의 일기 I** · 소리난장 · 복사와 변형 "오늘 나의 기분은~" · '어느 외로웠던 날의 일기'를 쓰고 움직이는 조각상으로 표현하기	
11/23 (목)	**이야기로 토닥토닥: 어느 외로웠던 날의 일기 II** · 몸으로 동사 표현하기 · 비사실적 표현 "몸으로 쓰는 시" · '어느 외로웠던 날의 일기'로 장면 만들기	

강사소개

마뇨 (김인혜)

극단 목요일오후한시 배우
즉흥연극 <별별 외로움>, <꿈의 탐험가들> 외 다수 출연
연극 <벌레가 된 소년>, <소녀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작/연출/출연

오정 (사미숙)

극단 목요일오후한시 배우
즉흥연극 <별별 외로움>, <꿈의 탐험가들> 외 다수 출연
연극 <만23/169/73>, <똑바로 나를 보라 1, 2> 작/연출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Incheon Arts Education Center 문의 | 032)455-7176,7174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하늬바람>은 맑은 날 서쪽에서 부는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을 일컫는 말로 상쾌한 느낌을 주는 바람입니다.
인천시민문화대학은 쉼 없이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하늬바람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따라잡기

대 상 관심있는 누구나(선착순 15명)

장 소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H동 자료실

일 시 10/13 ~ 12/1 (매주 금요일 저녁 7시~9시, 총 8회)

접수방법 선착순 신청, 온라인 http://naver.me/5eXHz4ez 으로 접수

강의 시간 동안 어린 자녀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술놀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만 4세~만 9세(초3))

한국의 대중음악을 좀 '체계적'으로 파볼 수는 없을까?
본 강좌는 한국의 대중음악을 체계적으로 감상할 때 제안하고 싶은 하나의 가이드이다.
그래서 지난 2007년 52명의 음악평론가 및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뽑은
100장의 한국 대중음악 명반을 듣고,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한다.
더불어 강좌를 통해 과거 8090시절엔 비교적 훌륭한 '언더그라운드 뮤직 씬'을
갖고 있었던 인천을 지키고 있는 음악 팬들이 다시금 음악 그 자체의
미학에 주목하게 되는 효과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날 짜	주제 · 내용	강 사
10/13(금)	**100대 명반의 의미,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올린, 누가 뭐래도 '전설'인 그들** · 8강 전체의 '프리뷰' · 2007년 100대 명반의 선정 작업의 시작 (선정위원과 대중의 시각) · 한국 사람이면 모를 리 없는 위인들의 음악 감상	배영수 (음악 칼럼니스트)
10/20(금)	**100대 명반 리스트를 보면, 한국 대중음악의 중흥기가 보인다** · 1980년대 음반 일본의 음악을 표절한 곡들_'변절' 혹은 '발전'의 발판?	
10/27(금)	**왜 90년대 한국 가요는 지금도 주목을 받고 있을까?** · 1990년대 음반 가수들과 음반 기획사들이 가장 많은 돈과 명성을 벌어들이던 황금기	
11/3(금)	**한국 대중음악의 두 키워드 '싱어송라이터'와 '밴드'** · 한국 대중음악 속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밴드의 음악적 매력	
11/10(금)	**100대 명반의 숨은 키워드. 레이블** · 확실한 음악적 방향성을 갖고 음반을 만드는 회사의 매력. · 유통에만 매달린 음반사들의 장·단점	
11/17(금)	**100대 명반의 '듣보잡' 특집(당신은 누구신가요?)** · 대중적 인기몰이에 실패한 음반들 · 이것들을 100대 명반에 선정한 의미	
11/24(금)	**100대 명반 선정 리스트의 여러 논란들에 대한 이야기** · 100대 명반 선정 리스트의 논란들, 진실과 거짓	
12/1(금)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작업이 남긴 것은?** · 100대 명반을 선정 후 한국 대중음악계에 생겨난 파생적인 움직임 · 100대 명반 선정 후 10년, 한국 대중음악계가 해 나가야 할 작업. ·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강사소개

배영수 (음악평론가. 100대 명반 선정위원)

'칼럼니스트' 혹은 '평론가'보다 '애호가'로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인천 출생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무명 뮤지션으로 활동하며 음악 커뮤니티를 전전하다가, 2006년 대중음악 전문지 [52street]에서 기자로 발탁돼 글을 밥벌이삼기 시작했다. 기자 및 음악칼럼 기고 등 업무를 보면서는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MKMF] 등에서도 선정위원을 맡았고, 이후 [멜론]의 음악전문 웹진이었던 [멜론쥬스]의 제작 업무를 맡기도 했다. 2010년부터 애향심이 발동해 인천으로 귀향(?), 지역 정론매체 기자로 활동하면서 [플랫폼], [아트인천] 등에서도 간간이 음반 및 음악관련 기고 활동을 해왔다. 현재는 인천의 정론매체 [인천in]에서 문화부 취재를 하면서 제3세계 국가의 전통 및 대중음악을 소개하는 음악 감상회를 진행하고 있다. 근대 이후 인천의 음악 역사에 대해서도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프로젝트 [인천여관]에서 인천의 음악과 문화예술을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부둣가 라디오]의 제작 및 진행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하늬바람>은 맑은 날 서쪽에서 부는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을 일컫는 말로 상쾌한 느낌을 주는 바람입니다.
인천시민문화대학은 쉼 없이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하늬바람이 되고자 합니다.

사진을 이해하는 8가지 시선

대　　상 관심있는 누구나(선착순 15명)

장　　소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H동 다목적실 및 A동 중회의실

일　　시 10/20 ~ 12/8 (매주 금요일 저녁 7시~9시, 총 8회)

접수방법 선착순 신청, 온라인 http://naver.me/Gtha0Xrj 으로 접수
강의 시간 동안 어린 자녀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술놀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만 4세~만 9세(초3))

사진은 현대사회와 예술을 이해하는 키워드다.

사진은 불과 200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역사 속에서 현대사회의 많은 특징들을 만들어 냈다. 사진 발명이전 문자와 그림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지금의 사고 관념과는 다른 것이었다. 물론 사진을 통해서 형성된 세계관도 문자와 그림으로 인식된 오랜 전통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사진매체는 바로 그런 전통적인 세계관을 문제 삼고 우리의 생각들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넓게는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패러다임과 인식판단의 문제와 같은 철학의 문제에서부터 예술의 개념과 형식, 방법론을 변화시켰다. 특히 현대미술의 핵심적인 개념들은 사진매체의 영향이 크다. 그런 결과 현대사회와 예술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사진공부는 매우중요하다. 이 강좌는 바로 그러한 인식하에 복잡한 현대사회의 특성과 난해한 동시대예술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면서 사진을 이해하는 8가지 시선으로 접근 한다. (인천사진아카이브 연구소 공동기획)

날 짜	주제 · 내용	강 사
10/20 (금)	**사물, 이미지, 개념_징후와 약속된 기호로서의 사진** · 사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기호로서 판단하고, 그 의미맥락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연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으로 비교하고, 사물, 이미지, 개념적 측면에서 해석의 다양성을 살펴본다.	이영욱 (인천사진 아카이브 연구소 소장)
10/27 (금)	**재현, 재생산, 제시_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 장치프로그램** · 매체 이론가 빌렘 플루서의 사진 장치프로그램의 사고철학을 바탕으로 사진이 세계를 어떻게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유희하는 사진가의 역할을 알아본다.	
11/3 (금)	**아우라_숭배와 전시가치 예술의 반란** · 사진의 예술성을 담보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진 발명 이후 예술개념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된 이유를 발터 벤야민의 아우라 개념으로 설명하고 현대미술활동 행위와 특성들이 왜 사진적인지 살펴본다.	
11/10 (금)	**인덱스_부재와 흔적의 미학** · 현대미술과 사진의 관계성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로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인덱스론은 사진이 현대미술의 담론 속에서 어떻게 부재와 흔적의 미학을 구축 했는지 알아본다.	
11/17 (금)	**푼크툼_상징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 롤랑 바르트의 <밝은 방>에서 제기하는 사진의 푼크툼은 무엇이고, 바르트가 제기하는 사진의 현상학적 측면이 왜 교양과 지식으로 대변되는 라캉의 상징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살펴본다.	
11/24 (금)	**모나드와 프레임_파편들의 단상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 · 세계전체를 기록하고, 모든 것을 전유하려는 사진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파편적이다.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파편들을 수집하고 결합하는 편집증이 프레임의 의미맥락 전략이라면, 그 단상들에 각인된 흔적을 추적하고 재구성하는 일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12/1 (금)	**실재와 실재효과_동일성과 차이, 반복 복제의 힘** · 사진은 실재가 아님에도 실재처럼 보이는 것은 동일성과 차이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진의 반복 복제의 힘은 바로 차이를 제거하려는 실재효과의 과잉된 잉여적 정보들임을 장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 개념으로 살펴본다.	
12/8 (금)	**재 매개와 배치_이미지 주체로서 사진적 행위와 잠재적 가능성** · 사진적 행위는 사진매체의 탈 이데올로기, 탈 역사적인 이미지소비주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진의 내포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읽고 재 매개하고 배치하는 사진의 잠재적 가능성을 살펴본다.	

강사소개

이영욱 (인천사진아카이브연구소 소장, 상명대 사진과 외래교수)

중앙대 일반대학원 사진과에서 사진학 박사를 수료하고 중앙대, 경성대, 상명대 사진과 학부과정과 대학원에서 출강했다. 상명대 사진아카데미, 대학원, 인천대 미술학과 등에 출강 중이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서울 오늘을 찍다>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강의 한다. 사진공간 배다리에서 사진 인문학을 5년 재 진행하면서, 최근 <섬 마을 이야기>, <해안선 프로젝트>, <폐허 속에 오브제>, <변모하는 인천>, <동네방네 인천사진아카이브프로젝트>등 사진아카이브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전시 감독했다. 현재 인천 사진아카이브 연구소 소장으로 인천의 장소특정성에 주모하고, 사진아카이브 예술적 변주를 위한 연구와 함께 개인작업을 병행하고 있다.